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

경력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01~2017)

(現)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2017~)

(現) 한국과학기술원(KAIST) MIP 겸임교수 (2013~)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9~)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 (2020~)

" 잘 나가던 기업은 왜 망했을까?"

잘나가던 기업이 왜 망했을까?

최대 실적을 거둔 기업이 무너진 이유,
25개 기업의 실패 스토리에서 배우는 경영 원칙

**‘경영 전략이란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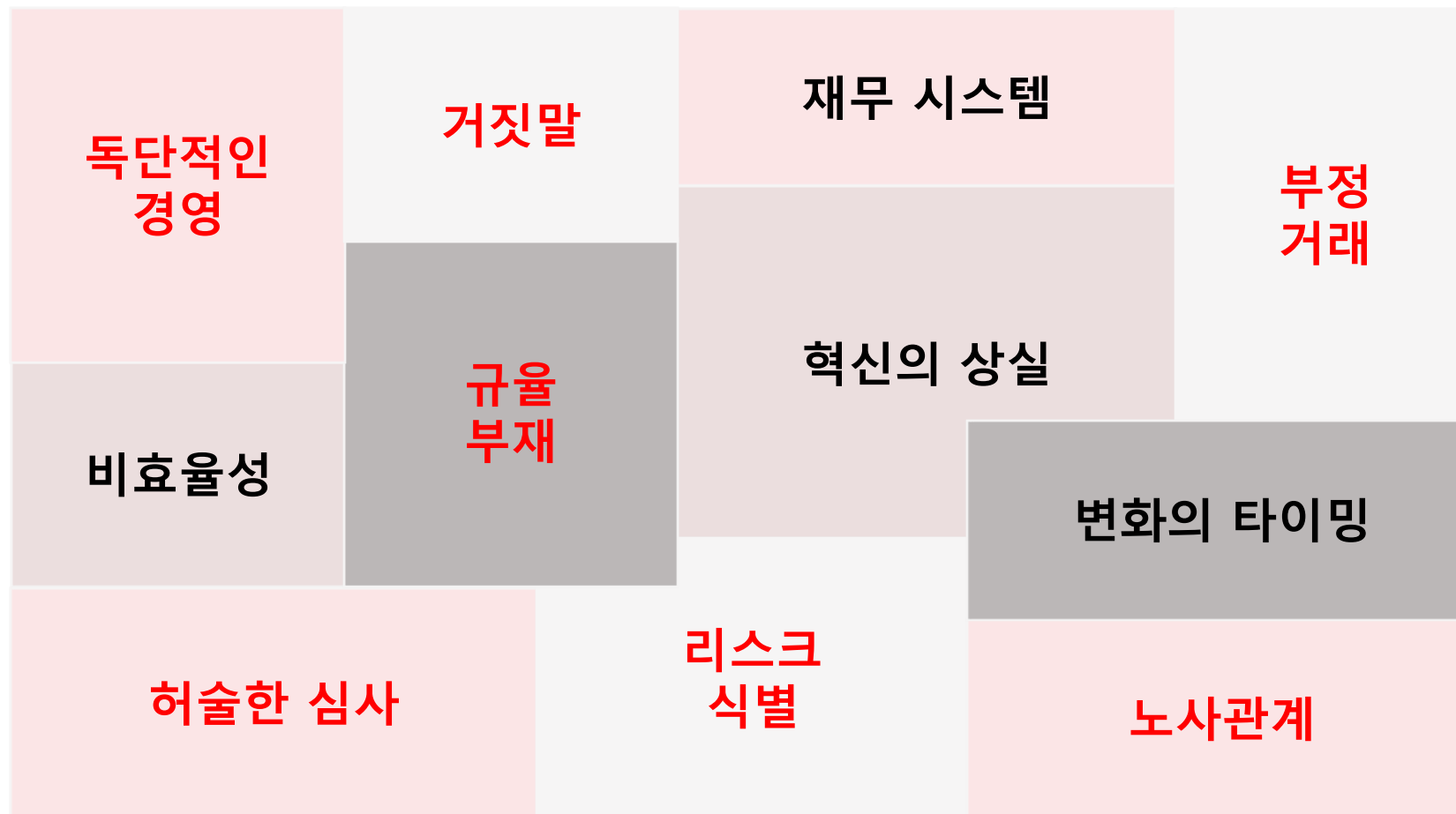
-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이클 포터 교수

실패 사례를 통해 경영 원칙을 제시하는 경영학 교과서

서울대 경영대학 이동기 교수 추천
“경영진과 직원이 꼭 함께 읽어야 할 책”

시원
복스

“잘 나가던 기업은 왜 망했을까?”



Legal Risk (법적 리스크)

[타다]

'타다'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단"

박현익 기자

입력 2020.04.09 16:32



드라이버들 "사실상 정식근로자... 각종 수당 못받아" 타다 경영진 고소
법원 "타다는 택시 아니다"... 고용당국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9일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고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파견이 금지된 업종인데 법을 어기고 드라이버와 파견 근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과 근로자에게 줘야 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앞서 법원과 고용당국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비대위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라이버 중 10%가 파견직, 90%가 프리랜서로 알려져 있다"며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기 때

타다 드라이버, 이재웅 전 대표 등 檢 고발..."타다는 혁신 아닌 불법 행위"

이정민 기자 권유정 기자

입력 2020.04.09 12:35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9일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 측이 드라이버들은 프리랜서라며 수당과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9일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타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환)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웅 쏘카 전 대표, 박재욱 대표 고발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플랫폼 택시 허가하는 '新 모빌리티법' 국무회의 의결

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0.03.31 11:00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보기술(IT)과 결합한 여객 운송 사업에 대한 분류를 새로 만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1인승 렌터카를 대여하는 동시에 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인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사실상 영업을 못 하게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체계 변화

| 현재 | 개정 |
|--|---|
| 여객 운송사업(버스, 택시) 대여사업(렌터카) 터미널 사업 | 여객 운송사업(버스, 택시) 대여사업(렌터카) 터미널 사업 |
| 운송가맹사업(택시만 가능) | 플랫폼 운송사업(렌터카 등 가능) 플랫폼 가맹사업(택시만 가능) 플랫폼 중개사업(앱을 통한 승차 공유) |

기존에는 운송가맹사업을 택시업체만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 ▲택시만 할 수 있는 플랫폼 가맹사업 ▲앱을 통해 차량을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가지 '플랫폼' 관련 분류를 신설했다. 타다를 비롯한 IT 기반의 모빌리티 회사들을 제도권으로 포섭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 회사가 단순히 택시 등 기존 운수사업자를 고객과 이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차량 조달, 기사 교육, 부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다'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단"

타다 드라이버, 이재웅 전 대표 등 檢 고발..."타다는 혁신 아닌 불법 행위"

플랫폼 택시 허가하는 '新 모빌리티법' 국무회의 의결

Legal Risk (법적 리스크)

[라임자산운용]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2심서 형량 늘어...”죄책 무거워”

김민우 기자
입력 2021.05.25 16:28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의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투자자문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억원도 명령했다.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 법적대응

이다비 기자
입력 2020.01.01 15:50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가 등록취소 제재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1일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등록취소로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는 이달 25일까지 인터넷 카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에서 고소인을 모집한다.

광화는 이미 몇몇 투자자가 고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위임계약서와 대리인선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펀드 판매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1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한 증권사기 혐의로 IIG 등록을 취소하고 IIG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어 투자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라임펀드 돈 들어간 주식 '부당거래' 여부 분석

정해용 기자
입력 2020.05.25 10:08 | 수정 2020.05.25 16:38



라임펀드 투자한 주식 종목별 정밀 분석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중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투자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의 전 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라임펀드가 투자한 주식 종목들 중 부당거래가 있는지를 종목별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돈이 들어간 종목 중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없이 바로 검찰에 통보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2심서 형량 늘어...”죄책 무거워”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 법적대응

금감원, 라임펀드 돈 들어간 주식 '부당거래' 여부 분석

Legal Risk는 무엇인가?

하자 있는 계약, 각종 청구,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 미흡,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손실 위험 (Roger McCormick)

법률이나 규제가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명확성의 부족이나 무모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이나 명성에 대한 위험
(Matthew Whalley)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령이나 규제 위반이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피해나 손해의 위험

Legal Risk는 무엇인가? (사례)

직원과의
근로관계 분쟁

동업자와의 분쟁

출시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불리한 조건의
해외투자 유치

규제기관과의 갈등

모호한 규제 요건

사업 모델의
법령 위반 가능성

서비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Legal Risk의 특징

전주기적 /단계별로
리스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사업(상품/서비스)
내용에 따라
리스크의 내용은 다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위험

법적 리스크 관리 (Legal Risk Management)

Qualitative Model

정성적 모델
전문가 기반 평가
실증적 데이터
미래 지향성

법적 위험성 관리

No Risk Management

위험 관리 없음

사고 대응
임시 사례 관리
놀람의 반복
가정된 고유성

Quantitative Model

정량적 모델

예측 분석
실증적, 내부 데이터
관련 외부 데이터
검증된 외부 모델

Legal Risk Management의 원칙

간단하고 명확해야 함

사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어야 함

경영진의 확실한 지지가 필요함

지속적인 공감대가 필요함

Legal Risk Management를 위한 준비

1. 실제로는 큰 소송/수사/조사 등을 경험하거나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회사가 비로서 시작함.

2. 왜 이렇게 시작이 어려운가?

-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과 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
-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
- 조직 내에서의 역할/기능 분담의 어려움

3. 위험의 현실화

4. CEO의 empowerment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 C-level의 책임자와 실무진

5. 스타트업?

단계 1 - 법적 리스크의 특징

1. 리스크가 어디서 주로 발생하는지를 파악

조직적/구조적 문제
규제
계약
소송/분쟁

2. 리스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 (Min/Max)에 대한 예상

3. 스타트업과 같은 성장 중인 기업이라면, 단계별로 발생하는 리스크 요소를 파악해야 함.

설립 초기
성장기: 인력과 조직 확장
투자단계 별

단계 2 - 법적 리스크의 분석

특정된 리스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리스크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

리스크의 구분 - 정도, 예측/통제 가능성, 발생 가능성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 내/외의 방법과 자원을 파악함

단계 3 - 법적 리스크의 평가

“위험 감수(risk tolerance)” 의 정도

기업별 차이: 목표

산업별 차이: 규제

리스크의 정도/중요도에 따른 차이

기업 단계에 따른 차이

개별 리스크에 대한 평가 → 위험 감수의 한계를 넘어서는가?

If Yes,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됨

If No, 리스크 management가 필요함

단계 4 –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처(대응)

1. 회피: 사업 중단
2. 해소: 리스크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
3. 조정: 리스크의 정도, 리스크의 부담자 등을 변경
4. 감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Plan B를 준비



OTT 기업의 Legal Risk Management

OTT 기업의 규제 리스크

- 중복 규제, 신규 규제 => 입법 과정에의 관여, 입법 동향 파악

OTT 기업의 계약

OTT 기업의 소송/분쟁

- 저작권
- 특허권
- 망사용료

www.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조원희

02 2051 1870
010 5056 0188
whc@dlightlaw.com